보성군, 남해선 개통으로 남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

1조 6천억 SOC 결실, 남해선 보성~목포 구간 개통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26일 신보성역에서 '보성~목포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강희업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정정래 한국철도공사 부사장 등을 비롯한 시군 부단체장, 도·군의원, 주민 200여 명이 참석해 개통을 축하했다.

이번 개통은 군민들의 숙원이자, 남해안권 교통망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국가 SOC 혁신 사업의 상징적 성과로 꼽힌다.

'보성~임성리 철도' 건설사업은 총사업비 1조 6,459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2002년 첫 삽을 뜬지 23년 만에 결실을 이뤘다.

보성에서 목포까지 82.5km 구간에 7개 정거장을 신설·개량했으며, 개통으로 보성~목포 이동시간은 기존 2시간 16분에서 1시간 3분으로 73분 단축된다.

군은 신보성역과 기존 보성역 간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역사 내·외부에 명확한 안내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관광안내소를 설치해 교통·숙박·관광지 정보를 제공하며, 무인역으로 운영될 신보성역에는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안전 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철도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통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발전에도 큰 변화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보성차밭, 벌교갯벌, 율포솔밭해수욕장 등 지역의 핵심 관광지가 수도권·영남권과 가깝게 연결되면서, 숙박·외식·교통 등 전반적인 경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영호남을 잇는 새로운 철도 축이 완성되면서 국가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남해선 개통은 보성군민의 숙원사업이자, 보성이 남해안 관광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철도가 열리면 길이 열리고, 길이 열리면 기회가 찾아오듯, 보성은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경제 거점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고흥군, 농촌왕진버스 '농심천심' 마음싣고 고흥 한바퀴

전년도에 이어 관내 전(全) 농협과 함께 건강지킴이 자리매김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6일 거금도농협에서 금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촌왕진버스 운영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농촌왕진버스는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전문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 건강검진, 상담, 진료 등 종합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검진은 김일기념체육관에서 금산면 주민 300여 명이 양방 진료, 치과, 안과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받았다.

협력병원으로는 녹동현대병원, 대한의료봉사회 등이 참여해 수준 높은 진료를 제공했으며, 특히, 순천제일대학교 소방방재과와 뷰티미용과 학생들이 소방시설 설치와 이발 봉사 등 재능기부에 나서 행사에 의미를 더했다.

'농촌왕진버스'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고흥군은 2024년부터 관내 전 농협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사업비는 2억 5천2백만 원으로, 개소당 지원금이 전년 2,4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증액돼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이번 거금도농협 운영을 끝으로, 고흥군은 7개 지역농협과 함께 한 농촌왕진버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흥/박도일 기자

'나주영산강축제' 특별무대서 만나는 '천연염색 패션쇼'

나주의 천연염색 패션, 세계를 이끌다

전라남도 나주시가 오는 10월 9일 '2025 나주영산강축제' 주무대에서 천연염색의 전통과 현대 패션을 결합한 특별한 패션쇼를 선보인다.

국내외 디자이너와 예술가가 참여해 색채와 음악, 무대연출이 어우러진 이번 공연은 나주 천연염색의 역사적 가치와 미래 가능성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알리는 특별한 문화예술 교류의 장이 될 전망이다.

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이사장 윤병태, 이하 재단)은 '2025 나주영산강축제'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천연염색 패션쇼'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나주는 국내 유일의 공립 한국천연염색박물관이 있는 곳으로 영산강 유역을 배경으로 천연염색과 직물 생산이 활발히 이뤄져 왔다.

특히 지리적으로 쪽 재배에 유리한 환경이 형성되며 역사적으로 천연염색 발전의 최적지로 자리매김했다.

시는 2016년 천연염색재단을 설립해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운영, 전통 계승, 산업 진흥과 대중화에 힘써왔다.

이번 패션쇼는 그간의 성과를 집약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선보이는 자리로 국내외 패션 디자이너와 작가들이 참여해 전통의 색과 현대적 감각이 어우러진 독창적인 패션쇼를 펼칠 예정이다.

절제된 무채색과 한국 고유의 색이 만나 속 깊은 미학을 표현하며 세계적 패션·텍스타일 작가인 대만의 임청매(林青梅)가 함께해 국제적 교류의 의미를 더한다.

디자이너 윤성윤은 쪽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의상을 선보이며 다채로운 변주와 깊이를 더한다.

특히 한복의 전통미와 블루진의 실용성을 결합한 'K-블루' 무대는 천연염색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여기에 프랑스에서 활동 중 일시 귀국한 거문고 연주자 이정주와 콘트라베이스 연주자 시몽의 라이브 무대가 어우러져 패션과 음악이 만나는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윤병태 이사장은 "전통과 현대, 국내와 해외가 함께하는 문화예술 교류의 장으로 만들 예정"이라며 "축제장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색다른 감동을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제1기 담양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군정에 청년 목소리 반영,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 기대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청년의 군정 참여 확대와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오는 10월 2일까지 '제1기 담양군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청년 참여 기구로, 위원은 임기 2년 동안 담양군 주요 청년정책과 현안에 대한 심의·조정 역할을 맡는다.

모집 인원은 전체 15명 중 당연직을 제외한 6명이며, 지원은 19세 이상 49세 이하로 담양군에 거주하거나 관내 학교·직장·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청년 가운데 청년정책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과 제출 서류는 담양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담양군은 청년의 지역사회 참여를 넓히기 위해 '제4기 담양군 청년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5개 팀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에는 청년인구 유입·정착을 위해 청년센터를 신설하고, '청년 담양 로컬 정착 지원사업'과 군복무 청년의 상해·질병 사고를 대비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청년정책위원회에 열정과 전문성을 가진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담양/이종옥 기자

강진군 개학 맞아 유해환경 합동점검 단속

청소년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 군-경찰서-교육청-민간단체 협력

강진군이 2학기 개학기를 맞아 지난 17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학교 주변과 학원가 등 청소년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유해환경 합동 점검·단속 활동을 실시했다.

점검에는 군청·경찰서·교육지원청·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비롯해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안전동아리 학생들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2학기를 맞이해 학교 주변 및 지역 내 청소년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약물 등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탈행위를 예방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단은 청소년 출입이 잦은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PC방 등을 방문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지 부착 여부를 확인했다.

편의점을 대상으로는 술·담배 구입시 반드시 신분증 지참 안내문 부착과 모바일 신분증 앱 사용방법 등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활동도 병행했다.

특히, 이번 활동에서는 청소년들이 직접 점검에 참여해 일상 속 유해환경을 체험하고, 이를 또래 집단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강진/손경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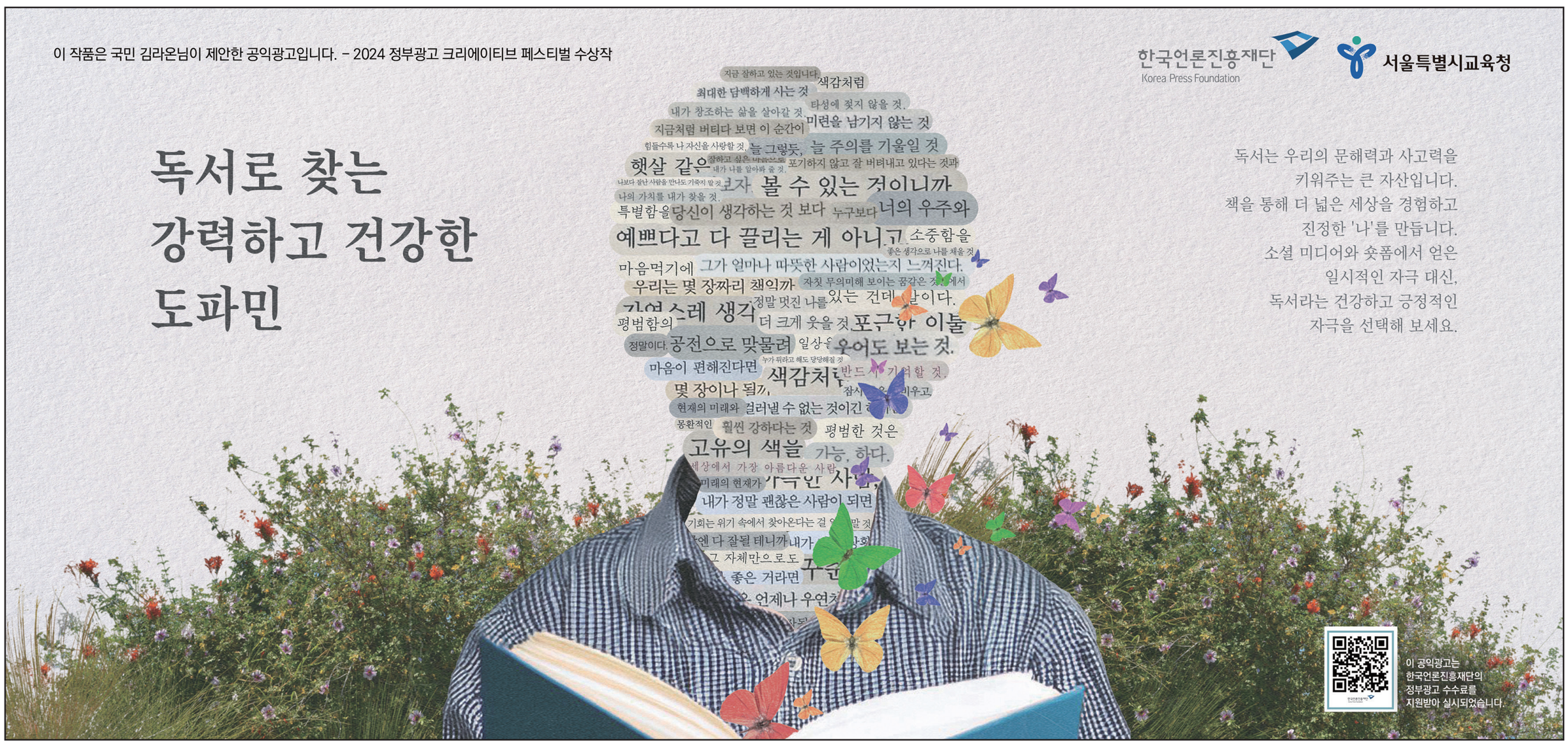
2025년 무안군 7월·8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8월 3일 호우피해 주택·소상공인 대상 군비 우선 지원

전남 무안군(군수 김산)은 7월과 8월 집중호우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추석 명절 전에 우선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의 국·도비 지원이 확정되기 이전에 군비를 긴급히 확보하여 선지급한 것으로, 추석을 앞두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도움을 주기 위해 예산을 긴급 반영했다.

무안군은 국·도비가 확정되는 대로 7월 피해 소상공인에게 재해구호기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8월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위로금·재해구호기금을 단계별로 지급해 피해 복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무안군은 7월과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주택 108동, 소상공인 시설 202동, 농작물 등이 피해를 보았으며, 특히 8월 집중호우(최대 시우량 142.1mm)로 약 5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해 무안읍·일로읍·현경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김산 군수는 "명절을 앞두고 피해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조기에 지급했다"며 "앞으로도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군 제공